

2022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장	결 재
						
개최일시	2022년 4월 19일 오전 10시	회의장소	행정관 605호			
		담당부서	기획팀			
참석의원	나지수, 신태균, 김경희, 오지영, 이지형, 박화진, 오명전, 김용환, 윤휘수, 심석영, 박다현, 이윤서, (간사) 권경미	기록자(간사)	송유진	기록일	2022. 4. 20	
		불참의원	없음			
		기타참석자	기획처장 이숙희, 사무관리처장 김용화, 재무회계팀장 김태환, 대학원교학팀장 조선미 경영전문대학원교학팀장 김해경			
안건		1. 대학평의위원회 의장/부의장 선출 2. 2021학년도 결산 자문 3. 대학원 학칙 개정(안) 4. 경영전문대학원 학칙 개정(안) 5. 학칙 개정(안)				
배포자료 및 기타		1. 대학평의위원회 부의안건 1부 2.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요약자료 3. 2021학년도 교비회계 재무제표 4. 대학평의위원회 운영 관련 안내 자료 5. 대학평의위원회 규정				
■ 심의(자문) 사항						
○ 간사는 총 의원 12명 전원이 참여하여 2022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가 성원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 안건에 앞서 간사는 배포된 대학평의위원회 운영 관련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평의위원회 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내 하다.						
[안건1] 대학평의위원회 의장/부의장 선출						
○ 간사는 평의원 전원이 새로 위촉됨에 따라 대학평의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평의원 회 의원 중 의장 추천을 요청하다.						
○ 윤휘수 의원은 오명전 의원을 의장으로 추천하고, 의원들의 제청을 통해 오명전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다.						
○ 이지형 의원이 부의장은 교원이 아닌 다른 구성원이 맡는 것을 좋겠다고 발언하고, 신태균 의원이 김경희 의원을 부의장으로 추천하여, 의원들의 제청을 통해 김경희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다.						
○ 의장으로 선출된 오명전 의원이 이후 평의위원회 진행하다.						
▶ 선출 결과						
- 의장으로 오명전 의원, 부의장으로 김경희 의원 선출하다.						
[안건2] 2021학년도 결산 자문						
○ 의장은 2021학년도 결산 자문을 상정하고 설명을 요청하다. 재무회계팀 김태환 팀장이 배포된 자료를 바탕으						

2022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장

결
재

로 설명하다.

- 김용환 의원은 2020, 2021학년도의 회계에 코로나 영향이 있는지 질의하다.
- 김태환 팀장은 그러하다고 답하고, 수강료 수입 등에서 2020학년도부터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확연한 변동
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22학년도부터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하다.
- 의장은 우리 대학의 경우 과거에는 임의 장학 적립금 감소가 빠른 편이었고, 2021학년도 결산 자료에는 기
부금 수입이 증가하여 오히려 임의 장학 적립금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일시적인 기부금 수입으로 인
한 것인지 질의하다.
- 김태환 팀장은 그러하다고 답하고, 우리 대학의 임의 장학 적립금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될
경우 향후 몇 년 안에 소진이 예상되지만 2021학년도에는 일시적 기부금 수입 증가로 늘어난 상황이라고
부연하다.
- 박화진 의원은 2018학년도까지 지원된 프라임 사업의 종료로 인해 기존에 사업비로 지원되던 학생들에 대
한 혜택이 축소되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다.
- 김태환 팀장은 프라임 사업은 종료되었으나, 이후 2019학년도부터 대학혁신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업이 늘
어서 우리 대학의 2020학년도 국고보조금 총계는 258억, 2021학년도 국고보조금은 269억으로 약 10억 이상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지속 되었다고 설명하다.
- 나지수 의원은 교육 외 수입은 예금이자가 대부분으로 보이는데, 다른 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질의
하다.
- 김태환 팀장은 예금 외에도 안정적인 회사채 등에 투자함으로써 시중 정기예금 금리 평균보다 우리 대학
의 적립금 수익률이 높다고 설명하다.
- 사무·관리처 김용화 처장은 대학은 사립학교법에서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적립금 투자에 대한 사항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내 대학들은 현실적으로 해외 대학처럼 위험성이 있는 투자를 하기 어렵다고
부연하다.
- 의장은 재무회계팀(금융상품 수수료 등) 의 2021학년도 결산이 0원인 부분에 대해 질의하다.
- 김태환 팀장은 2021학년도에는 여건상 예금 외에 신규로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다.
- 신태균 의원은 르꼬르동 블루의 계약 기간에 대해 질의하다.
- 김용화 처장은 계약 연장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 의장은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2021학년도 결산 자문을 통과시키다.

▶ 자문 결과

- 2021학년도 결산에 대해 이견 없이 원안대로 자문을 마친다.

[안건3] 대학원 학칙 개정(안)

- 의장은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설명을 요청하다. 대학원 교학팀 조선미 팀장은 배포된 자료를 바

2022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의장

결
재

탕으로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설명하다.

- 오명전 의원은 이번 개정이 기존의 재학생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질의하다.
- 조선미 팀장은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답변하다.
- 의장은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 심의 결과

- 의장과 의원들은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안건4] 경영전문대학원 학칙 개정(안)

- 의장은 경영전문대학원 학칙개정(안)을 안건 상정하고, 설명을 요청하다. 경영전문대학원 교학팀 김해경 팀장은 배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경영전문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설명하다.
- 이지형 의원은 제25조 1항 개정안의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라는 문구가 졸업요건을 충족하여도 심의를 통해 학위를 수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인지를 질의하다.
- 김해경 팀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며, 절차상 경영전문대학원 심의를 거치지만 졸업요건을 충족한다면 모두 학위를 수여한다고 설명하다.
- 의장은 제25조 1항의 개정안 ‘경영전문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라는 문구가 학부의 학칙에도 명시되어 있는지 질의하다.
- 간사는 (학부) 학칙에는 해당 문구가 없다고 답변하다.
- 의장은 기존과 같이 제25조 1항의 문구를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하다.
- 김정희 의원은 경영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은 입학 목적이 다르므로, 졸업요건을 완화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며 입학생 모집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다.
- 김해경 팀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25조 1항의 개정안의 문구를 ‘석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수업연한 이상 등록하고, 학위논문(3학점)과 논문대체 학점이수(3학점) 중 선택하여 최소 45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다.
- 의장은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제25조(졸업요건) 1항의 수정안을 포함하여 경영전문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가결하다.

▶ 심의 결과

- 의장과 의원들은 경영전문대학원 학칙 개정(안) 중 제25조 1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결하다.

개정안	수정안
제25조(졸업요건) ① 수업연한 이상 등록하고, 학위논문과 논문대체 학점이수 중 선택하여 최소 45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한 때에 경영전	제25조(졸업요건) ① 석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수업연한 이상 등록하고, 학위논문(3학점)과 논문대체 학점이수(3학점) 중 선택하여

2022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장

결
재

문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수여한다.

최소 45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안건5] 학칙 개정(안)

- 의장은 학칙 개정(안)을 안건 상정하고, 설명을 요청하다. 기획팀 권경미 팀장은 배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학칙 개정(안)을 설명하다.
- 이운서 의원은 공과대학 학제 개편 의도는 이해하고, 개편을 무산시킬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학생 의원으로써 440명의 공대 학우들이 의견을 대표로 전달하고자 한다고 발언하다. 공과대학 학생들의 요구사항으로 첫째, 공과대학 내 전과 허용 인원 확대 및 기존에 1회 전과 이력이 있어도 추가 전과 허용, 둘째, 전공 교과 교차 학점 인정 확대, 셋째, 학교, 교수, 학생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마련을 제안하다. 또한, 학교에서 제시하는 학제 개편 사유 중 입학 인원 증설은 현재 재학생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고, 결손 인원 미충원의 문제는 그 원인인 교수 부족 등을 해결해야 하며, 커리큘럼 개편에 대해서는 학교는 이번 첨단학과 신설로 사회 수요에 따른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커리큘럼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반면에 학과 교수님들 중에는 커리큘럼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학생들을 설득하기도 했다고 언급하다.
- 권경미 팀장은 우리 대학의 전과 제도가 이전에는 학과에서 나가는 인원과 기존 학생들이 학년을 올라갈 인원을 산정해서 최소 인원으로 그 부분을 제한했는데, 현재는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전과할 수 있도록 전과 제도를 확대, 개편했다고 설명하다. 현재는 공대 내에서 개편된 학과로 전과를 희망하는 인원을 예상할 수 없지만, 전과 여석 인원에는 지금 충분히 학생들이 선택을 할 수 있고, 2학년뿐만 아니라 3,4학년까지 전과를 허용하고 있다고 부연하다. 교차 학점 인정에 대하여는 소프트웨어 중점대학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초 모듈에 대해서는 먼저 코드웨어를 하기로 했고, 학과마다 차별화된 교육과정이 있어서 어떤 교과목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현 시점에는 공통 과목들을 몇 학점까지 늘리겠다고 확답할 수 없으나, 공대학장님이 지금부터 학생들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학생들과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하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학생들의 교과목에 대한 니즈가 공유되어 학과 내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이다. 3자 협의체에 대한 사항은 어제 간담회에서는 제안한 부분이 아닌데 추가 된 것인지 질의하다.
- 박다현 의원은 어제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실 생각이 있냐고 물었는데 답변이 없어서 오늘 공대 학생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답변하다.
- 권경미 팀장은 3자 협의체 구성이 가능하며, 협의체를 통해 첨단학과 학생들과 충분히 논의하여 교과 개편이 진행될 것이라고 발언하다.
- 박화진 의원은 공과대학 교수들이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공과대학 학제 개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를 고려하여 진행된 것이라고 발언하다.
- 의장은 본 안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학칙 개정 추진 배경과 학생들의 반대 의견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학교와 학생의 의견이 개진되다 보니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의원들의 의견 개진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제안하다.

2022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장

결
재

- 기획처 이숙희 처장은 과거에 우리 대학은 전통적으로 인문사회 및 예체능계가 특화된 학교였는데 공대를 신설하고, 3년간 연 150억씩 지원되는 프라임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당시 공대 설립을 위해 기존에 있던 학과 정원에서 420명의 정원을 공대로 옮겼고, 그 후에 88명의 정원 감축이 이뤄졌으며, 약대를 6년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학과에서 40명을 차감하면서 공대 이외의 다른 전공들은 단기간에 많은 정원 감축을 받았다고 설명하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공과대학의 발전과 사회 수요에 따른 학생 양성 및 취업의 기회 제공, 국고사업 수주를 위한 학제 개편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서울시내 16개 대학이 이미 첨단학과를 신설했다고 부연하다. 또한, 최근 상위권 우수 대학일수록 대학에 입학 후 휴학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높은 중도탈락률이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 중도탈락자에 대한 충원인원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우리 대학은 교지확보를 부족 및 법인 수익용 재산 미비라는 태생적 특수성 때문에 결손인원의 15% 밖에 충원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발언하다. 첨단학과와 증설로 세 전공에 10명씩 증원하고, 첨단학과로 인정된 전공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15% 제한을 받지 않고 100% 충원이 가능함을 추가 설명하다. 이번 공과대학 개편 추진 일정상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며, 앞으로 3자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향후 진행되는 상황들을 학생들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율해나가겠다고 의견을 피력하다.
- 이지형 의원은 본 평의위원회가 학교와 학생 측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학생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학칙 개정에 앞서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학과명에 동의하기 어려운 점 때문인지, 그동안 교수 충원 등의 학과 내 사안이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인지에 대해 질의하다.
- 이숙희 처장은 우리 대학은 프라임 사업 계획서에서 제안한 교수 충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수 충원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발언하다. 다만, 타 대학으로 이동하는 등의 일시적 부재는 발생한다고 부연하다.
- 박다현 의원은 공과대학이 아닌 다른 학과의 정원 감축 등에 대한 이야기는 지양해 달라고 발언하다. 공과대학 내 설립 7년 차 되는 신설 학과들은 기존 부실한 커리큘럼으로 인한 불만사항이 많이 있고, 커리큘럼 개편 등에 대해 사전에 학생들과 소통이 없었던 점이 아쉽다고 의견을 피력하다. 또한, 이번 공과대학 학제개편은 기존 학과에서 다루던 여러 분야 중 특화된 한 분야로 축소됨으로 인해 기존 학생들과 신입생들 간의 괴리감이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다. 학생들은 계속 커리큘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기 원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공과대학 외의 다른 학과 학생들도 불안해하는 점을 생각하여, 앞으로 진행 절차를 확실하게 밝혀줄 것을 요청하다.
- 이숙희 처장은 공과대학 소속 학과 이외의 타 학과와 우리 대학의 특수성을 언급하게 된 것은 학칙 개정의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임을 말하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실망감을 준 것에 대한 사과를 표명하다. 이번 학제 개편은 단순한 명칭변경이 아니라 변화된 커리큘럼과 학과 발전 계획에 따라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것임을 설명하며, 앞으로 학생들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다.
- 박화진 의원은 그동안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대한 불만을 가졌던 것이 이번 공과대학 학제 개편을 계기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하다.

2022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의장

결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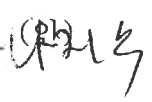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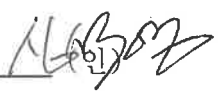
- 오지영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수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학과 명칭 개편 시에는 세밀한 커리큘럼과 학생을 위한 계획도 함께 제시할 것과 앞으로 학제 개편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확립하고, 학교, 교수, 학생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요구하다. 또한, 결손 인원 충족의 기준이 되는 4대 요건의 미충족에 대한 개선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하다.
- 이숙희 처장은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대학의 특성과 그간 국유지 관련 양여 노력 등 교지 확보 관련 학교의 어려움을 설명하다. 또한, 사회적 변화와 온라인 교육의 활성화로 교지 확보율을 대학 평가의 요건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에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하다.
- 김용환 의원은 공대 신설 당시 기초공학부 80명의 정원이 사업 종료 후 기존 학과로 환원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상 이번 학제 개편으로 가능성이 없어진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다.
- 이숙희 처장은 그러하다고 답변하다.
- 이윤서 의원은 학제 개편에 대해 소통 부재에 대한 서면 사과, 구체적인 개편 내용 및 의도 서면 공지, 소통 협의체 구성에 대한 약속을 요구하다.
- 이숙희 처장은 서면 사과문에 대해서는 총장님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밝히며, 커리큘럼의 개편 등에 대해서는 공과대학 교수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소통하겠다고 답하다. 또한, 오늘 참석한 학생 의원들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평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잘 공유해달라고 요청하다.
- 이지형 의원은 학과명 변경이 단순한 워딩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소속감과 정체성의 문제로 느껴질 수 있다며, 이 점에 대해서 학교가 무감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하다.
- 의장은 기존의 정원 조정으로 소규모 학과들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요청하다.
- 의장은 추가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안건을 투표에 붙이다. (회의 중간에 박화진 의원이 퇴실함에 따라) 투표인원 총 11명 중 9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다.
- 의장은 2022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를 마치다.

▶ 심의 결과

- 의장과 의원들은 투표를 통해(찬성 9명, 반대 2명) 학칙 개정(안)에 원안대로 가결하다. 끝.

2022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 참석의원 서명

의 장 오 명 전 	부의장 김 경 희 
의 원 신 태 균 	의 원 나 지 수 
의 원 오 지 영 	의 원 이 지 형 
의 원 박 화 진 	의 원 김 용 환 
의 원 윤 휘 수 	의 원 심 석 영 
의 원 박 다 현 	의 원 이 윤 서 